

2022

희움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신우진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 3:13)

드림이인으로 발전하는 빛음

by 신우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빛음을 마치며

조금 더 발전하고 드림의 가치와 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빛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빛음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은 타임엔지니어링으로 여기서 배운 시간의 여러가지 성질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외에도 언어나 성결 등 여러가지 수업을 함으로써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처음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빛음이 끝나도 앞으로 이번 빛음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채워나갈 것이다.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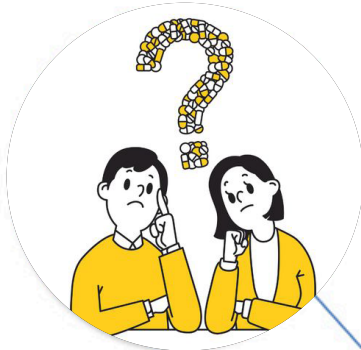
- 사명선언문
-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 언어빛음 감상문
- 신앙 에세이
- 정의 에세이
- 성결 에세이
- 평화
-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 문제해결 프로젝트
- 3P창의활동 계획서
- 절제하는 삶의 원칙
- 빛음 2단계 소감문
-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 공동 성결서약문



ABOUT ME 신우진

2007년 대구에서 태어나 현재 세종에 거주중이다. 취미는 헬스, 요리, 승마, 그림그리기. 좌우명은 "앞만 보고 가자, 내 인생에 뒤란 없다."로 이를 바탕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명 선언문 신우진



사고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현실에 충실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미래를 그린 후 그것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사고를 하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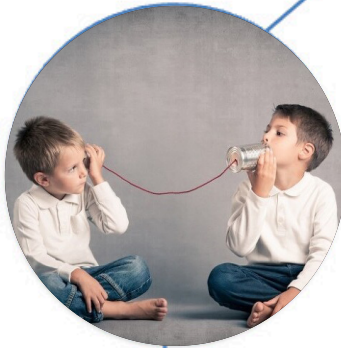
크리스천 경영인

힘든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넘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 경영인이 되겠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달란트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품어주는 소통가

다양한 세대와 공간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각을 계속 흐르게 만들고 이로써 썩지 않게 하여 편견 없이 모두를 품어줄 수 있게 되겠다.



글로벌인

다재다능하고 영어를 잘 구사하며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있는 일을 한다.

Action Plan

신우진

사고하는 사람

-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책을 한달에 한권 이상 읽는다.
-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다.
-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매일 자신을 성찰한다.

크리스천 경영인

- 사소한 아이디어를 메모한다.
- 경영학과 관련된 책을 매달 한권씩 읽는다.
- 경영학에 관심을 가져 매일 경영과 관련된 신문을 읽는다.

본질적 사명

-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 이웃을 아끼고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가기

품어주는 소통가

- 내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발음 연습을 한다.
-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편견 없이 비판적으로 본다.

글로벌 인재

-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운다.
- 내가 잘하는 것을 찾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 매달 관심있는 부분을 정하고 그 분야 책을 1권씩 읽는다.

타임 엔지니어링 감상문

타임 엔지니어링이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우는 수업이었다. 나는 이 수업에서 먼저 차원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차원이란? 차원은 총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0차원은 점으로 표현되며 인간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1차원은 선으로 인간관계에서는 한 사람과만 친한

사람이다. 2차원은 평면으로 같은 세대에 있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3차원은 도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이다.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전혀 다른 세대나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4차원은 3차원에 시간이 합쳐진 것으로 인간관계에서 4차원에 이른 사람은 현재를 살아도 다른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의 미래와 과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차원은 지금까지의 0~4차원을 초월하여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곳이라 볼 수 있다. 나는 차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떤 차원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3차원의

차원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
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나에게서는 현재가 너무 급해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무언가 하고자 할 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현재에 할 일이 더욱 늘어났던 경험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의 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4차원에서 사고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차원 높은 사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한 차원 높게 사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시간이란? 시간의 개념은 고대부터 고민하던 주제로 오늘날에는 압축성 초월성 선택성 복제성 계시성과 같은 성질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 대해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고 했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시간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라 표현하며 시간의 순차성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미래 현재 과거가 섞인다고 말하며 예시를 들었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을 중간 지점에서 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태양 기준에서는 이미 출발한 과거의 빛이지만 지구의 관점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의 관점에서는 그 시점이 현재가 된다. 따라서 빛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겹치는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즉 뉴턴이 틀렸다. 그런데 이 가설에서 한가지 모순이 생긴다. 빛의 기본적으로 항상 직진하는데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공간이 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게 되고 미래와 과거가 계속되게 된다. 우리는 이를 영원이라 부르고 공간이 힘으로써 천국이 존재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천국의 존재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듣고 나서 추상적이었던 천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천국의 존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현재다. 이 현재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계속하여 쪼개다 보면 현재는 더없이 0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현재는 없고 따라서 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이라 인지했던 것은 사건의 순서로 사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이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이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이 되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불행을 돌아보면 선악의 기준을 내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 생긴 문제들이었다.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여 믿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남들도 나를 위해 살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준다고 믿어야 한다. 나는 예전부터 "남을 도우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돕기 망설였는데 이 부분을 듣고 조금은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남을 더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은 사건의 연속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압축해야 한다. 같은 양의 사건을 1주에 만드는 사람과 하루에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7배로 매우 크다. 사건을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나열하고 타임 테이블에 넣을 때 압축하여 넣는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과도한 압축으로 오는 번아웃을 피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도 훈련이다. 이것이 계속 훈련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게 된다. 나는 부분을 듣고 다른 물질처럼 시간도 압축하면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도 시간을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폭발력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아직은 과도한 압축으로 인한 번아웃이 두렵기는 하지만 많이 경험하면 익숙해지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번아웃을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다.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미래로 보내야 한다. 생각을 미래로 보내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다. 그 후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건을 압축하여 만든다. 그러면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게 될 수 있다. 나는 마침 어떻게 내가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타임 엔지니어링 수업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큰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먼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 노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나만의 힘으로 힘든 것이 생긴다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언어빛음 감상문

언어란 사상·감정을 나타내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음성·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로 이 언어는 쓰는 방법에 따라 그 파급력이 천차만별이 된다. 그중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한국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청자가 편한 대로 대답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이를 자각하고 나보다 너를 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는 세계 언어 중 높임말이 가장 발달한 언어다. 높임말만 6개 정도 존재하고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에 더 중점이 맞춰져있다. 한국어는 서술어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언어다. 따라서 말의 요점이 뒤에 있기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 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오해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한국어는 감각적이고 섬세한 언어다. 따라서 단순하고 저속한 표현보다는 다양한 표현으로 자기 입술을 가꿔야 한다. 단순하고 저속한 표현이나 비속어 같은 것을 계속하여 쓰게 되면 언어 발달이 부족해져 뇌가 단순해지고 결국 그런 언어만 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국어는 전체적으로 남을 위하는 언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수준 높은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임말 같은 것으로 언어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쁜 언어 사용습관에 대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도 나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의 에세이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법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고 있는 이념이다. 이런 정의는 항상 많은 사람이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고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큰 노력을 했지만 계속 사회가 발전하며 점점 복잡해져서 오늘날까지도 뜻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못하였다. 최근 2021년 4월 30일 경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1년에 걸쳐 약자를 괴롭히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겨울 일부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제설제와 눈을 섞어 먹이고 손바닥에 손 소독제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얼음덩어리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또 3학년이 되서는 둔기로 다리를 맞아 전치 5주의 근육파열 진단을 받았고, 피해 학생이 소금과 후추, 돌, 나뭇가지를 넣은 짜장면을 먹지 않자 머리를 둔기로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 피해를 보았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가해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 발달 단계를 총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자신만 고려하는 단계로 제1단계는 타율적 도덕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제2단계는 개인주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보상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제3단계는 대인 간 기대 관계 단계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에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한다. 제4단계는 사회 시스템 도덕 단계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법과 사회의 질서로 이 단계 이후부터는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알게 된다. 제5단계는 개인의 권리 및 사회 계약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제6단계는 보편적 윤리적 원칙 단계다. 이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 이제 사회의 관습이나 법 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불법이라도 올바른 행동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6단계까지의 도덕 발달 단계 중 이번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의 사고가 머문 단계는 가장 낮은 1단계로 행동에 대한 처벌만 생각하는 단계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장난을 했다가 이런 일을 하고도 당장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신으로 인해

로렌스 콜버그

미국의 심리학자이다.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영향을 받아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괴롭힘의 강도가 강해졌다. 즉 가해 학생들의 도덕적 단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둘째,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피해 학생에게 지속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낮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던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시민의식이란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견지해야 할 의식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원래 중세도시 신분 계급에서 시작하

여 점차 근대 사회의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민의식이 낮으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시민의식이 낮은 후진국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작은 물건들을 쉽게 훔쳐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크게는 폭행과 같이 약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무시하거나, 어린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생사를 헤매는 상황에서도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무관심한 사례도 존재한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번 충북 제천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이 폭행은 약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고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이나 시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시민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각자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며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폭행을 계속하여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어 계속하여 이러한 폭행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물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정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성격적 정의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공정과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된다. 또한 성경 속 정의에서는 사회적 약자들, 과부나 고아, 노예, 이방인들과 같은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환대와 사랑을 베풀 것을 강조했고 약자가 고통받는 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직시하며 힘없고 가난한 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통렬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문란함은 종교적 윤리적 악이라고 선포하였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성경적 정의를 알고 어떤 행동이 정의롭지 않으며,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정의의 의미를 밝히시는데 정의는 하나님 말씀의 준수에 있고, 형제와의 화해, 극기와 인내, 혼인에 대한 충실함, 정직과 비폭력의 실천, 원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신다. 또한 참된 자선·기도·단식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고, 오히려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하시며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새나 들꿩, 입을 옷과 길쌈의 비유를 통해 세상 걱정만 하기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길 가르치셨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정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자인 이웃을 긴 시간 동안 괴롭혀 이웃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는 정의에 대해 잘 모르고 이에 따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못해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먼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 발달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 그 후 자신의 단계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여 계속하여 자신을 갈고닦아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 먼저 앞장서려고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정의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실 것을 믿고 안심하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적 정의에 나를 맞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실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성경적 관점에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도 계속하여 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통해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 것이고 독서를 통해서 올바른 시민에게 필요한 소양을 쌓아 시민의식을 더욱 키우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글에서 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같은 방법으로 내 도덕 단계의 수준을 점검할 것이다. 그 후 성경에 관한 공부를 통해 내 도덕 단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날 잘 갈고 닦으면 앞으로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많이 발전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성결 에세이

성결한 삶

사전적으로 성결이란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정의되지만, 성경적으로는 세상의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정의된다. 레위기 11:44-45에 따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시기에 우리가 죄와 분리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결을 중시하시기에 성결이 결여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성결 결여로 인한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2021년 6월 강원도 양구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17살 학생이 투신하였다. 이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것으로 약자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성결하지 않고 자살한 학생마저 성결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은 죽으면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이는 기독교에서 벗어난 매우 세상의 생각으로 볼 수 있고 자살 또한 나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에 위배되는 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모두가 성결했다면 피해 학생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 다른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결 결여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4월에는 17세 여고생이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21층에서 투신하였다. 이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보면서 죽으면 편해질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만약 사회와 자살한 학생에게 성결에 대한

인식과 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지분이 크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근대주의의 이성 중심주의에 회의를 내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개개인을 과하게 존중하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개인의 개성으로 치부하며 억지로 이해하게 되었다.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진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성경적 진리에 위배되는 것마저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존중하며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려지게 했다. 또 휴머니즘을 반대하여 초월하고자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유행하며 사람들은 인간 이외의 것을 인간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개를 구해도 비난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이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또 내 일상속 내 주변에는 욕을 쓰는 사람 냉장고에 있는 남의 음식을 몰래 빼먹는 사람 등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 나 또한 성결하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성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 성결이란 흠이 없이 완벽하며 최선을 다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흠이란 자기 능력 속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데 성결은 우리가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당연히 흠이 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아무리 쉬운 길로 갈 수 있어도 그 길이 옳지 않다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성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 같이 조별 과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오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조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결한 것이다. 이런 성결은 내 삶을 결정하는 사건의 사이사이에 사건을 선택하는 판단의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결이 내 인생 판단의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지 않아도 항상 흠 없이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에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항상 떳떳할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성결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사회는 개개인의 분열로 조금씩 썩어들어갈 것이고 나 또한 성결하게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봤을 때 많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는 조금 더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항상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것인지를 성찰할 것이다.

평화 에세이

더 평화로워지는 법

평화란 평화학에서는 폭력이 없는 상태라 말하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미친 상태라 말한다.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흘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놓고 모두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뉴스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평화가 깨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사례로 최근에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죽는 폭력의 상황이 생겼고 총 7만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전쟁 즉 폭력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폭력 발생 이유는 크게 힘의 우위, 이익 추구, 집단적 목인 3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중 2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는 러시아가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쉽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고 비옥해 유라시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꼽힌다. 그리고 유럽 열강이 동방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였고, 러시아엔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를 확보하면 유럽을 감시할 수 있고 유럽과의 완충재 역할을 한다는 이익을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의 세 가지 요소를 알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관계성이라 한다. 나와 내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 이 안에서 폭력적 요소를 지우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동체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공존을 기초로 공동체가 유지되어 소외 없이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즉 다양한 사람이 모여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공동체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개인의 평화도 깨져버리게 된다. 마지막 평화의 요소는 지속성이다.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쌓아 성취해야 한다. 이때 이렇게 성취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는 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3가지 종류가 있다. 물리적 폭력은 전쟁과 같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폭력이다. 이 폭력은 가장 직접적이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 폭력은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생기는 폭력으로 빈부격차 등이 있다. 이 폭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 느끼고 있고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게 되기에 더욱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은밀하게 자신과 맞지 않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랑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서로와 신뢰감을 쌓고 상대와 의견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며 상처만 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반면 사랑이 넘쳐흐를 정도로 풍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더 협조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나는 예전에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나는 내 사랑을 친구에게 주지 못하였고 그러자 친구도 나에게 실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었다. 나중에 이를 돌이키고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 해결하기는 했지만 만약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평화의 세 요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더 이상 평화가 없어지고 폭력과 전쟁만이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세 요소를 잘 기억하고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평화롭게 살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신앙에 세이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드리미 학교를 들어오게 됐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크리스천과 거리가 먼 내가 어떻게 기독교적 성향이 강한 이 학교에 적응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내 안

호세아서

호세아 서는 유대교 및 기독교의 구약성경에 포함되는 소서적 가운데 하나로, “소예언서” 또는 “12예언서”로 알려진 작은 예언서 가운데 순서 삼으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다.

에 ‘나를 왜 죄인이라 말하는가? 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와 같이 너무 많은 성경에 대한 의문들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이번 글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내가 조금씩 의문을 해소해 나갔던 과정을 적어볼까 한다.

나는 죄인인가? 항상 드는 의문이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하며 없는 잘못을 회개하자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으면서도 마냥 회개하는 책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 복음 사경회에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 강의를 시작하고 바로 선교사님은 호세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 호세아는 성실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명령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 1:2)이란 명령 즉 음란한 여자를 곁에 끼고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몹시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다. 호세아는 그 명령을 받아 고멜이라는 세속적인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의 따분한 모습을 보고 흥미를 잃었고 외도하다가 아이가 생긴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용서해주고 산후조리까지 도와줬다고 한다. 그러나 고멜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외도하였고 결국 총 3명의 아이를 외도로 낳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고멜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집에 있는 모든 귀금속을 들고서 도망친다. 그리고는 고멜이 싼 가격에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여자를 사오게 된다. 하지만, 고멜은 그래도 절대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비아냥거린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고멜이 알아들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호세아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세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니 생각이 달라졌다. 알고 보니 이 이야기는 선지자의 삶 자체를 메시지가 되게 만드신 것이었다. 우리는 고멜이었고 하나님은 호세아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계속하여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를 놓지 않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계속 날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멜과 같은 죄인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는 이 질문은 이곳에 와서 처음 가지게 되었다.

십자가는 항상 교회에 가면 크게 세워져 쉽게 볼 수 있어서 예전에는 이 십자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두 삶의 끝에서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 죽음 안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찢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는 선행으로 덮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찢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값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사실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지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이 사실도 완벽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는 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앙심이 부족한 나로서는 아직 느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로서 어떻게 이 질문을 풀어갈지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성서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가장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과학을 사용하여 성경에 대해 파헤치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성경이 모순이 없다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만든 것에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 것 같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의문을 해소했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여 더욱 좋은 답을 찾을 것이다.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답을 찾았다면 36개월이 지난 후에는 얼마나 완성도 있고 좋은 답을 찾을지 기대된다.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인터뷰 대상



저희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공유가치창출, 기업 사회공헌, 전략적 비영리 등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임팩트 비즈니스' 를 수행하는 조직과 리더들을 돕는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팅 및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이버 게임 부문에서 경험을 쌓은 뒤 2010년 국내 최초로 임팩트비즈니스전문컨설팅기업인 임팩트스퀘어를 창업했다. 다수의 대기업, 공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의 CSV전략을 개발하고 실행을 도왔으며, 글로벌 전문 조직들과 협업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을 전파하고 있다. 서울숲 소셜벤처 클러스터를 기획해 스타트업간의 네트워크형성에 힘쓰고 있다.

Q.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원래 창업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일이라는 생각에 창업에 대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찾다가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이라는 책을 읽고 창업한다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Q. 이런 방식의 회사를 창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하나의 문제를 깊게 파는 것보다 다양한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제를 파고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그 사람의 철학에 맞게 서포트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세상에는 산을 오를 때 자신이 오르는 것이 중요한 사람 남을 서포트해서 오르는 것이 중요한 사람 많이 오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자주 오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남이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에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적성에 잘 맞고 뛰어난 능력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 달란트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나요?

A. 그 기업들의 초기 성장 패턴이 비슷합니다. 보통 초반의 기업은 문제를 명료하게 만들고 비즈니스 수익화하는 작업에서 문제를 겪고 조금 커지게 되면 조직 문제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다양한 회사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어떤 문제에 막히게 되면 대기업과 협업을 추진하거나 수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Q. 경영자의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도전이 창업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명료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분야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전공한 사람이어도 비즈니스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고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융합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Q.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성공을 가장 많이 했나요?

A. 문제의식이 확고하고 명료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의 1위는 타이밍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되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질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명료하고 확고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Q. 경영학에 관심이 있고 사업을 하고 싶은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저는 경영학을 그렇게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학이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영학은 대기업의 경영을 이론화 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자 되기 전에는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경영학에서 다루는 경영자적 관점 기업가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경영학만 있기에 경영학을 복수전공 부전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절반 이상이 기업이기에 그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는 있으나 경영학은 지식보다 오히려 철학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뷰 소감

나는 경영과 사업에 대해 막연한 관심이 있지만 아직 많이 아는 것이 없기에 내가 이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를 파악하고 사업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알고 싶어 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모든 것이 나에게 생소해서 좋은 경험이 됐다. 인터뷰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뽑자면 문제의식의 중요성이다. 문제의식이 확실해야 사업을 했을 때 기다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만약 나도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 많이 떨렸지만, 대표님이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문제 해결 프로젝트

팀원: 김예원, 신우진, 이은지

1. 주제

학교 안내 시설 개선

2. 문제 개요

학교에 처음오는 신입생이나 손님들이 학교 내 시설의 위치를 잘 모른다. 또 학교의 규모가 크고, 각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들이 없어서 길을 헤매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는 불편함을 겪는다.

3. 의미 있는 청중

학교에 처음 오시는 외부 손님 & 신입생들 등등 학교가 생소한 분들, 학교 시설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

4.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1. 우리학교 시설의 정확한 위치
2. 각 시설에 대한 용도, 유래 등 각 시설의 의미 등등의 정보
3.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
4. 코딩에 대한 지식
5.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가 어디인지

5.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1. 학교 안내 소책자 제작
 - 인디자인 사용
2. 학교 안내 대지도 설치
3. 표지판 설치
4. 학교 시설 안내 영상 제작 후 유튜브 업로드
 - 영상 촬영 필요
 - 영상 편집 기술 필요
5. 행사장에 있을법한 모니터에 학교 소개영상 틀기
6. 안내 책자의 디지털화
 - 안내 사이트
 - 안내 QR코드

6. 문제 해결 방법 정리

6. 디지털 안내 책자
안내 책자를 디지털로 제작한다.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형식이다.
그 후 각 건물 곳곳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부착한다.
학교가 처음인 학생과 같은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 시설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게 되면 백화점 안내 키오스크처럼 건물을 선택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7. 액션 플랜

1. 학교 시설들 촬영
 - 촬영 구도 확인
2. 학교 시설 요소 정리
 - 각 시설별 요소 정리
3. 학교 시설 정보 탐색 및 조사
 -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 및 답변 기록
4. 탐색 및 조사 내용 정리
 - 기록 내용 요약
5. 웹 만들기
 -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공부하며 실행
6. QR코드로 전환(생성)
7. QR코드 부착

3P 창의회 활동 계획서

1. 활동명

활동명	과학으로 접근하는 성경
팀원	신우진
개요	나는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의 방주 같은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책에서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등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 항상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들은 인터넷 검색, 선생님의 조언 등을 조합한 후 간단하게 정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대측정법의 원리를 직접 조사하여 거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이 결과를 책으로 만들고자 한다.
의미있는 청중	성경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궁금한 사람

2. 자료 & 재료

성경과학 연구소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 유튜브
		

3. 내용 및 활동

내용 및 활동 (주차별 계획 포함)
1주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 정리
2주차 설문을 통한 사람들의 의문 수집
3주차 인터넷으로 의문 수집
4주차 지금까지 모은 의문 총 정리
5~10주차 의문에 대한 답 만들기
11주차 책 제작 (내용 정리)
12주차 책 제작 (내용 정리)
13주차 책 제작 (디자인)
14주차 마지막으로 책 오타 검수
15주차 책 제작 (인쇄)

4. 평가

평가영역	반영비율(100%)	영역별 만점	평가
출석	10	10	
성실도	20	20	
의문 리스트	30	30	
결과물	40	40	
합계	100	-	

절제하는 삶의 원칙

선하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가치 없는 성향에 이끌리지 않으며, 올바른 이성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나에게 절제가 필요한 부분

- 1)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 2)기분 좋지 않을 때 표정
- 3)오지랖
- 4)생각 없이 하는 말
- 5)필요 없는 말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 1)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한다.
- 2)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 3)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
- 4)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한다.
- 5) 욕심내지 않는다.

빛음 2단계 소감문

나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긴 했지만 나는 내 생각보다 더 나에게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빛음 과정 동안 나는 나에게 대해 무수한 질문을 받았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하나도 명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빛음을 마치고 조금 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랐다. 이렇게 알게 된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고 싶은 것이 다양하게 많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 나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시타비의 모습을 보이고 필요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은 내가 원했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아까워하지 않고 힘든 사람을 기꺼이 돕는 방법을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감시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방법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 보고 계속 발전하는 방법을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신중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잠언 18:15

2022 드리미 학교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
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신우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